

공간 차원 형용사의 대립 관계 연구: '깊다/얕다'를 중심으로*

박선영·홍기선
(서울대학교)

<Abstract>

Park, Sun-young & Hong, Ki-sun. 2007. Research on the opposition of dimensional adjectives: the case of *gipda* 'deep' and *yata* 'shallow'. *Korean Semantics*, 23. Spatial dimension terms generally have been argued to have pairs of antonyms. However, a closer look at those objects they are applied to shows that those pairs are not in exact symmetrical relation. Particularly dimensional adjectives designating depth have been strongly suspected of their opposition in that they have some noticeable differences in comparison with other dimension terms. For example, the frequency data show huge gap between *gipda* 'deep' and *yata* 'shallow'. Also cross linguistically some languages do not have distinct lexical terms corresponding to *yata* even though they have ones corresponding to *gipda*.

In this paper we consider the opposition between dimensional adjectives *gipda* and *yata* on the basis of corpus data. First we extract and analyze spatial object terms which occur together with *gipda* and *yata*. Then we work on the meanings of dimensional terms *gipda* and *yata* and their opposition. In conclusion we suggest that *gipda* and *yata* have their own semantic range and they are in opposition just when referring to the objects which have both opening and bottom in them.

핵심어: 깊다(*gipda* 'deep'), 얕다(*yata* 'shallow'), 차원형용사(dimensional adjectives), 공간 차원 어휘(spatial dimension terms), 반의(antonym),

* 이 논문은 2004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다.(KRF-2004-074-AM0060)

입구(opening), 바닥(bottom), 대립(opposition).

1. 머리말

‘높다/낮다’, ‘길다/짧다’, ‘깊다/얕다’ 등 공간 차원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다른 감각 형용사들과는 달리 비교적 엄격한 대립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Greimas(1966)과 Bierwisch(1967) 등의 구조주의 분석은 차원 형용사의 의미를 구성하는 의미소에 긍정적 값(+)과 부정적 값(-)을 부여함으로써 긍정적 어휘와 부정적 어휘들이 명백히 균형적이고 대칭적인 대립 구조를 이루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한국어 공간 차원 형용사와 관련해서 양태식(1985) 또한 이들이 의미소 ‘크다’에 대해 (+)와 (-) 극성으로 극단적인 맞섬 관계의 짝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분석은 ‘높다’, ‘길다’, ‘짧다’ 등 이른바 무표적 어휘들간의 비교 대조를 통해 의미 구조를 체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결과 두 반의어가 가질 수 있는 가능한 차이는 논의에서 배제하였다.

이후의 연구들 그 중에서 Lyons(1977), Carey(1982), Lang(1994), 류병래·이용훈(2005) 등은 우리가 사물에 차원 어휘를 적용하는 것은 구조주의 입장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거나 엄격하지 않으며, 사물의 위치나 형상, 관찰자의 시점에 따라 그 사물의 차원은 여러 차원 형용사로 표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들의 관심 또한 유표적 표현에 대한 개별 연구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최근 Carstensen(2003), Vogel(2004), Kemmer(2007) 등은 종래에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공간 차원 어휘들 간의 대립 관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특히 Vogel(2004)와 Kemmer(2007)은 인지 의미론 관점에서 말뭉치에 기반하여 사람들이 공간 사물의 차원을 어떻게 인지하고 개념화하는지, 그리고 차원 어휘들이 그들의 지시물과 관련하여 어떤 대립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또한 위의 두 연구와 같이 말뭉치에 기반하여 한국어 공간 차원 어휘의 반의성에 대한 경험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깊다/얕다’

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그 이유는 말뭉치에서 ‘깊다/얕다’가 지시하는 사물들이 현저한 비대칭성을 보이는 반면, 대부분의 사전들은 ‘깊다/얕다’가 지니는 공간 차원 의미를 모두 하나의 의미 범주에 포괄하고 두 어휘를 반의어 쌍으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다음은 표준국어대사전에 기술되어 있는 ‘깊다/얕다’의 뜻풀이이다.

(1) 깊다:1. 곁에서 속까지의 거리가 멀다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깊은 산 속/뿌리깊은 나무/바닥이

깊고 기름진 논/깊은 산골에 한 나무꾼이 살았다

얕다:1. 곁에서 속, 또는 밑에서 위까지의 길이가 짧다

얕은 물/얕은 산/천장이 얕다

비록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얕다1’은 ‘깊다1’의 반의어라고 하지만, 실제로 ‘얕다1’의 정의 속에 들어 있는 ‘밑에서 위까지의 길이’는 ‘깊다1’을 정의하지는 않는다. 또한 ‘곁에서 속까지의 거리’는 ‘깊다/얕다’가 적용되는 모든 공간 사물들을 설명하기에 다소 불충분하다.

본 연구는 세종균형말뭉치 중 색인말뭉치로부터 공간 차원 형용사 ‘깊다/얕다’와 함께 잘 쓰이는 어휘들(일반적으로 연어라고 하는)을 추출하고, 이들 어휘들의 어떤 공간 차원이 ‘깊다/얕다’에 의해 표현되는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깊다’와 ‘얕다’가 지니는 의미의 공통성과 개별성을 살펴보고 두 어휘 간에 주장되어온 대립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2. 공간 차원 형용사

‘깊다/얕다’에 대한 논의에 앞서 공간 차원 어휘로서 ‘깊다/얕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대립 관계에 있는 공간 차원 어휘들의 일반적 특성부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한다. 사실 차원 어휘들이 그렇게 균형적이고 대칭적인 대립 관계를 이루지 않는다는 것은 그간 많은 연구들이 언급한 분포의 무표/유표성에서 쉽게 알 수 있다.¹⁾ 분포의 무표/유표성은 중립적인 문맥에서 두

1) Lyons(1977:p.306)은 분포상의 무표/유표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대립어 중 형태상

대립어 중에 무표항(혹은 긍정적 어휘)을 쓰는 언어 보편적 현상으로 이해된다. 예를 들어 다음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간 차원의 크기(즉 높이, 길이, 깊이)를 물을 때 특별한 뉘앙스를 원하는 경우가 아니면 긍정적 어휘인 ‘높니/기니/깊니’의 사용이 자연스럽다.

- (2) 가. 산이 얼마만큼 높니/낮니?
 나. 머리가 얼마만큼 기니/짧니?
 다. 물이 얼마만큼 깊니/얕니?

또한 공간 차원을 나타내는 반의어쌍들은 그들의 사용 빈도수에 있어서도 편향성을 보이는데 무표항이 유표항보다 훨씬 더 자주 쓰인다. 임지룡(1992)가 인용한 문교부 (1956) [우리말 말수 사용의 잣기조사]나 세종색인말뭉치의 빈도 조사 결과는 이를 잘 보여준다. 예시를 위해 ‘높다/낮다’, ‘길다/짧다’, ‘깊다/얕다’의 조사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²⁾ (참고로 괄호안의 숫자는 해당 무표항에 대한 유표항의 빈도수 비율이다.)

(3) 공간감각어의 빈도표 (문교부 (1956):임지룡(1992)에서 인용)

높다/낮다	777/186 (≒23.93)
길다/짧다	594/207 (≒34.84)
깊다/얕다	1443/101 (≒6.99)

(4) 세종균형말뭉치의 색인말뭉치 빈도표 (세종색인말뭉치(2002))

높다/낮다	5635/1785 (≒31.67)
길다/짧다	1921/1482 (≒77.14)
깊다/얕다	2631/139 (≒5.28)

유표적 요소는 형태상 무표적 요소보다 그것의 분포에 있어서 더 제약을 받는 경향이 있다.(the formally marked member of the opposition tends to be more restricted in its distribution than the formally unmarked member.)

2) 주어진 ‘높다/낮다’, ‘길다/짧다’, ‘깊다/얕다’의 빈도수는 공간 차원으로 쓰인 ‘높다/낮다’, ‘길다/짧다’, ‘깊다/얕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비공간 개념어로 쓰인 ‘높다/낮다’, ‘길다/짧다’, ‘깊다/얕다’도 모두 포함한 숫자이다.

본 연구의 주제는 아니지만, (3, 4)에서 보여주는 두 반의어 간의 빈도차에 대한 이유는 부분적으로 Clark & Clark(1977), Coady & Huckin(1997), Sun(2004) 등의 대립어 습득에 대한 실험 결과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이들 연구들은 일련의 실험을 통해 어린이들이 공간 차원 형용사를 습득할 때 ‘크다’와 같은 적극적/긍정적인 항목을 ‘작다’와 같은 소극적/부정적인 항목보다 먼저 습득하며, 또한 언어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적극적/긍정적인 표현에 편향성을 보이므로 의도적인 부정적 표현의 학습은 언어 습득에 많은 도움이 안된다고 한다.

(3, 4)의 빈도수 분포를 보면 한 가지 특징적인 사실을 주목하게 된다. ‘높다/낮다’와 ‘길다/짧다’에 비해 ‘깊다/얕다’의 빈도수는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단지 한국어 ‘깊다/얕다’에만 해당하는 특징은 아닌 듯하다. 다음 (5)는 브라운코퍼스에서 추출한 영어의 공간 차원 어휘의 빈도수인데 한국어와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확실히 ‘deep/shallow’ 간의 빈도수 차이는 ‘long/short’나 ‘high/low’ 보다 크다.³⁾

(5) 공간 차원 빈도수 (브라운코퍼스)

high/low	584/218 (≒37.33)
long/short	878/245 (≒27.90)
deep/shallow	123/14 (≒11.38)

‘깊다/얕다’가 다른 공간 차원 어휘와는 다르다는 것은, ‘높다/낮다’나 ‘길다/짧다’ 등은 모든 언어를 통틀어 비교적 안정적으로 반의어쌍을 이루지만, ‘깊다/얕다’의 경우 다수의 언어가 ‘얕다’에 해당하는 개별 어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서도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 불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등은 한국어와 비슷한 공간 차원 어휘의 반의어쌍을 가지지만 한국어 ‘얕다’에 대응하는 독자적 어휘가 없다. 이들 언어에서 공간 차원을 나타내는 한국어 ‘얕다’는 각각 ‘깊지 않다’에 해당하는 *peu profond*, *poco profundo*, *non profondo* 등 통사적 부정 형태와 대응하거나, 이태리어의 경우 한국어 ‘낮다’

3) 브라운코퍼스(Brown Corpus)는 1960년대 미국 브라운대학교에서 미국 영어를 대상으로 구축한 100만 어절의 소규모 말뭉치이다.

에 해당하는 basso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깊다/얕다’는 공간 차원 어휘들 중에서 그 반의성에 대해 가장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왔고,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관심은 이 두 어휘의 대립 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3. ‘깊다/얕다’의 대립 관계에 대한 경험적 고찰

3.1. 말뭉치에 기반한 연구

서론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말뭉치에 기반한 연구로서, 세종균형 말뭉치(2002)의 색인말뭉치로부터 ‘깊다/얕다’와 함께 잘 쓰이는 어휘들을 추출하였다. 이때 함께 잘 쓰이는 어휘들은 ‘깊다/얕다’와 술어-논항 관계를 구성하는 명사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한국어는 주격 중출 구문을 가지므로 형용사 술어의 논항 구조에 대해서 다소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공간 차원 형용사는 일반적으로 일항 구조를 가지는 술어라는 주장을 견지한다. 그 이유는 다음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용사 주격 중출 구문을 소유 구문으로 바꿨을 때, ‘깊다/얕다’가 확실히 ‘싫다’나 ‘무섭다’와는 다르며, 이때 주격 중출로 나타나는 주어들을 별개의 논항으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⁴⁾

- (6) 가. 그 나무는 뿌리가 깊다/그 나무의 뿌리는 깊다
나. 그는 공부가 싫다/*그의 공부가 싫다
다. 그는 밤이 무섭다/*그의 밤이 무섭다

따라서, 예를 들어 ‘생각이 깊은 사람’에서 ‘생각’은 ‘깊다’의 논항으로, ‘사람’은 ‘생각이 깊다’의 전체 수식을 받는 피수식어로 간주하고 ‘생각’만 ‘깊다’의 연어 추출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주요 관심은 공간 차원 형용사로서의 ‘깊다/얕다’이므로 말뭉치에서 추출한 ‘깊다/얕다’의 연어 표현 중 공간 사물을 나타내는 어휘와 비공간 혹은 추상을 나타내는 어휘는 따로 구분하였다. 일반적으로 공간 차원어의 의미는 시간 등 추상 의미의 원형 의미가 되며, 원형 의미와 확장 의미는 의미 전이 과정에서 반드시 인지상의 대

4) 형용사의 주어와 논항 구조에 대해서는 김정남(2005)와 김건희(2006)을 참조.

칭 구조를 이루지는 않는다. 따라서 확장 의미를 통해 공간 차원어의 대립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확장 의미는 원형 의미와 유기적 관계를 가지므로, 비록 확장 의미에 대한 정교한 의미론적 논의는 시도하지 않지만, 본 연구에서는 원형 의미를 구성하는 공간 차원 개념이 확장 의미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간단히 보여준다.

3.2. 공간 차원 형용사 ‘깊다/얕다’

다음 <표1, 2>는 세종균형말뭉치에서 공간 차원 형용사 ‘깊다/얕다’와 함께 쓰인 공간 사물들을 출현 빈도순으로 나타낸 것이다.⁵⁾ 참고로 ‘속’은 ‘깊다/얕다’의 전형적인 연어로서 ‘깊다/얕다’가 적용되는 지시물과 함께 붙어서 한 단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속’이 함께 나타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따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표1> ‘깊다’의 연어와 그 빈도수

빈도수	‘깊다’의 지시 대상어
31	산 속
21	바다
17	눈(신체기관)
14	골짜기
13	산, 산골
12	물, 주름, 주름살
11	산중
9	계곡
7	마당, 샘
6	동굴 속, 땅 속, 바다
5	못
4	굴 속, 강, 눈동자, 숲 속, 우물, 하늘
3	구멍, 바닷속, 숲, 우물 속, 저수지, 호수, 뿌리

5) 세종균형말뭉치(2002)는 한국어 연구와 교육을 위해 균형적으로 구축된 1000만 어절 규모의 말뭉치이다. 그러나 ‘얕다’의 경우 머리말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출현 빈도가 상당히 적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얕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저자들의 언어 직관과 구글 등 웹 검색 예제 등을 보조적으로 사용한다.

2	골짜, 낭떠러지, 동굴, 물 속, 바닷물, 산골짜기, 산길
1	강물, 강물 속, 갯, 갯내, 갯도, 계곡, 구덩이, 구멍 속, 냇비, 늪 속, 도랑, 동해, 두메, 땅, 만, 물길, 바다밑, 배꼽, 불우물, 브이네크, 산꼭, 산기슭, 산림, 산줄기, 살 속, 샘물, 손가락, 수풀, 연못, 용소, 울타리, 자국, 잔주름, 절벽, 틈 속, 주름골, 혀

<표2> ‘알다’의 연어와 그 빈도수

빈도수	‘알다’의 지시 대상어
9	물
4	바다
2	강물, 바닷물, 뿌리
1	강, 개울, 계곡, 굽, 냇물, 다리, 돌담, 모래톱, 못, 물가, 물길, 산, 언덕, 유물, 접시, 키, 탁자, 황해

<표1, 2>에서 ‘깊다/얕다’와 함께 쓰인 어휘들을 보면, ‘깊다/얕다’는 공통적으로 그리고 현저하게 물과 관련된 어휘들과 잘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깊다’는 ‘물’, ‘바다’, ‘샘’, ‘우물’, ‘강’, ‘저수지’, ‘호수’, ‘못’ 등과 ‘얕다’는 ‘물’, ‘바다’, ‘강’, ‘강물’, ‘바닷물’, ‘개울’, ‘냇물’ 등과 함께 나타나고 있다. ‘깊다/얕다’가 전형적으로 물과 관련된 표현들과 함께 잘 쓰인다는 것은 언어 보편적인 현상이다. Wienold & Rohmer(1997)은 31개 언어를 대상으로 공간 차원 어휘를 유형론 관점에서 비교 대조하고, 결론적으로 ‘깊다’가 적용되는 공간 사물은 빈 공간을 가지고 있거(containing empty space)나 공간에 담겨진 물(liquid contained in space)로 정의하였다. 또한 많은 연구와 사전에서는 물에 적용되는 ‘깊다/얕다’의 공간 차원 의미 즉 지표면이나 수면에서 물 속으로 얼마나 먼가를 ‘깊다/얕다’에 대한 기본 의미 혹은 전형적 의미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양태식(1985)는 의미자질 [+downward]를 사용하여 깊이는 지표면에서 수직으로 얼마나 먼가를 말하며 정확히 높이와 반의 관계를 이룬다고 한다. 전수태(1996) 또한 일반적으로 깊이를 나타내는 말은 기준면(일반적으로 지표면이 되는데)에서 아래쪽/수직으로 얼마나 먼가를 말하는 개념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표1>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비록 ‘물’이 ‘깊다’로 표현되는 전형적 지시물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말뭉치에서 ‘깊다’와 가장 자주 쓰이는 표현

은 ‘물’이 아니라 ‘산’이다. ‘산 속’이 세종균형말뭉치에서 31번, ‘산’이 13번 그리고 ‘산중’이 11번 쓰이는데 이는 물 관련 어휘들의 빈도수를 다 더한 것보다 더 많다. 물론 다음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과 관련하여 ‘깊은 산’은 ‘높은 산’과는 다른 공간 차원을 나타낸다.

(7) 계곡 따라 난 길은 가파르진 않아도 꾸준히 안으로 안으로 들어가 절 앞에 이르르면 높은 산 깊은 산 속에 온 듯하다

‘높은 산’이 산의 수직 공간 차원인 아래에서 위로의 크기가 크다는 것을 말하는 반면, ‘깊은 산’은 예문에서 ‘속’과 함께 쓰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산이라는 공간 사물의 내부 크기 즉 수평 공간의 길이가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깊다’가 ‘산 속’이나 ‘산’, ‘산중’과 함께 55번이나 쓰인 것과 달리, ‘얕다’는 ‘산’과 한 번 쓰이고 있다. ‘얕다’ 자체의 상대적으로 낮은 출현 빈도와 다른 말뭉치(예를 들어 카이스트 코퍼스)나 웹 검색 결과를 고려해보면, 비록 세종균형말뭉치에서 한 번 쓰이더라도 ‘산’은 ‘얕다’의 유효한 연어로 볼 수 있다.⁶⁾ 그러나 이때 중요한 것은 빈도수가 아니라 ‘얕은 산’은 ‘깊은 산’과 다른 공간 차원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깊은 산’은 ‘높은 산’과 구분되며 ‘속’을 가진 삼차원 공간인 ‘산’의 입구에서 안으로 거리가 크다는 것을 말한다.⁷⁾ 그러나 ‘얕은 산’은 ‘산’의 수평 공간의 크기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깊은 산 속’과 같이 ‘얕은 산 속’이라고 하면 아주 어색한 표현이 된다. 대신 다음의 예문에서 보듯이 ‘얕은 산’은 ‘낮은 산’과 거의 동의어로 쓰이고 있다. (8ㄱ)에서 ‘높이’가 ‘얕다’와 같이 쓰이며 (8ㄴ)에서는 ‘얕은

6) 카이스트 색인코퍼스(1998)에서 ‘얕다’는 ‘산’과 함께 두 번 쓰이고 있다. 다음은 카이스트 색인 코퍼스에서 ‘얕다’와 함께 쓰인 명사들의 출현 빈도 결과이다.

4	물
3	강물, 여울
2	개울물, 바다, 산
1	개울, 물길, 냇비, 내리막, 담장, 언덕, 울타리, 지붕, 처마, 키

7) 연구자들에 따라서 ‘입구에서 안’이라는 개념은 ‘겉에서 속’ 혹은 ‘밖에서 안’, ‘가장자리에서 안’ 등으로 쓰이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약간의 의미 차이는 있겠지만 이들이 속이 비어있는 공간이나 액체 등이 채우고 있는 공간을 표현하는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입구에서 안’을 대표 개념으로 쓴다.

산'과 '높은 산'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 (8) ㄱ. 봉수대가 있는 소이산은 높이가 360미터정도되는 얇은 산이다
나. 처음에는 얇은 산을 오르다 그보다 조금 높은 산에 도전하고, 그보다 조금 더 높은산을 정복하고, 드디어는 해발 1000m, 2000m가 넘는 산에도 오르 고, 그렇게 하나하나 이뤄나가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표2>에서 '얇다'는 물과 관련된 어휘들을 제외한 거의 나머지 표현 들 '굽', '돌담', '언덕', '키', '탁자' 등과 쓰여 모두 '낮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리고 '얇다'의 이러한 의미를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밑에서 위까지의 길이 가 짧다'로 정의하고 있다. '얇다'가 '낮다'와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것은 한국 어의 다른 언어 현상 특히 다음 파생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9) 나지막하다/야트막하다 낮보다/얇보다 낮잡다/얇잡다

일반적으로 '나지막하다'는 주로 소리와, '야트막하다'는 사물의 길이와 관 련해서 잘 쓰이지만 '나지막한 산'과 '야트막한 산'은 거의 같은 의미를 지닌 다. '낮보다/얇보다'와 '낮잡다/얇잡다'도 다소 쓰임상의 차이는 있지만 실제 가치보다 낮게 보다라는 의미에서는 거의 비슷하다. 어느 면에서 볼 때 공간 사물과 관련해서 사람들은 '얇다'가 적용되는 차원과 '낮다'가 적용되는 차원 을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다음 예문에서 보듯이 때로는, 드물기는 하지만, '얇은 바다'가 '낮은 바다'가 된다.

- (10) ㄱ. 미시간 대학은 심해와 낮은 바다에 서식하는 다른 뷰골라 네르티나 종들 에 공생하는 엔도뷰골라 세르툴라의 유전자를 분석했다.
나.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도 낮은 바다에서 해수욕을 즐길 수 있고, 제트스키, 마나나보트, 스노클링, 정글투어, 마나가하섬 관광, 선셋 크루즈, 잠수함투 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취향에 따라 즐길 수 있다.

그렇다고 '얇다'와 '낮다'가 전적으로 동의어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낮 은 코', '낮은 창문', '낮은 건물'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얇은 코', '얇은 창문',

‘얕은 건물’은 아주 어색하거나 쓰이지 않는다. 또한 같은 공간 사물에 적용된다 하더라도 ‘얕다’와 ‘낮다’가 다른 차원을 나타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얕은 냄비’와 ‘낮은 냄비’라고 하면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떠올리는 냄비의 형상은 비슷하겠지만, 냄비를 인지하는 방식은 관찰자와 관련해서 다를 수 있다. ‘얕은 냄비’의 경우 관찰자는 냄비라는 공간 사물을 입구에서 안으로, ‘낮은 냄비’는 냄비라는 공간 사물을 앞에서 바라본다. 그러나 그 밖의 다른 공간 사물들 ‘언덕’, ‘천장’, ‘지붕’ 등과 함께 ‘얕다’는 ‘낮다’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인다. 반면 ‘깊다’는 ‘깊은 산’과 ‘높은 산’에서 본 것처럼 ‘높다’와 분명히 구분되어 사용된다. 무엇보다 ‘깊은 바다’를 ‘높은 바다’로 하지 않으며 ‘깊은 돌담’, ‘깊은 탁자’, ‘깊은 키’, ‘깊은 굽’ 등은 모두 어색하거나 비문법적이다. 그 결과 ‘얕다’의 공간 차원 의미인 ‘밑에서 위까지의 길이가 짧다’와 관련해서 ‘깊다’는 ‘얕다’와 어떠한 대립 관계에도 있지 않다. 오히려 이 의미와 관련해서 ‘얕다’는 ‘높다’와 반의 관계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깊다’는 ‘숲 속’과 ‘숲’에 대해서도 ‘산’과 마찬가지로 이들 사물의 수평 공간 크기를 나타낸다. ‘깊다’와는 반대로 ‘얕다’는 ‘숲 속’이나 ‘숲’의 수평 공간 차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삼차원 공간을 나타내는 ‘속’과 함께 쓰이는 ‘얕은 숲 속’은 확실히 어색하며 ‘얕은 숲’은 ‘얕은 산’에서처럼 낮다의 의미로 쓰인다. 예를 들면 (11)에서 ‘얕은 숲’과 ‘높은 산’이 이중병풍을 이룬다면 이는 ‘얕은 숲’이 ‘낮은 숲’이기 때문이다.

(11) 암자 바로 뒤의 얕은 숲과 멀리 높은 산이 이중병풍처럼 바라보이는 가지산 영축산의 위엄이 보는 사람을 압도하는 곳입니다

또한 ‘깊다’는 ‘마당’의 수평 공간 크기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마당’은 위에서 살펴본 ‘산’이나 ‘숲’과는 다르다. 무엇보다 입구와 안을 가진 삼차원 공간으로 ‘마당’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 ‘깊은 산 속’이나 ‘깊은 숲 속’과 달리 ‘깊은 마당 속’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따라서 ‘깊다’가 ‘산’, ‘숲’, ‘마당’에 적용되는 경우 ‘산’과 ‘숲’에서는 수평 공간 상 입구에서 안으로, ‘마당’은 수평 공간 상 앞에서 뒤로의 차원을 나타낸다. 세종말뭉치에는 그 예가 없지만 ‘마당’ 또한 ‘얕다’와 함께 쓰이기도 한다. 그러나 다음 (12)에서 알 수 있듯이

‘얕은 마당’은 ‘얕은 산’이나 ‘얕은 숲’과 같이 ‘낮은 마당’의 뜻으로 사용된다.

- (12) 초가을의 어스름이 내리고 거실에 틀어놓은 음악소리가 흘러나오자 실내보다 서너단 얕은 마당의 테이블에 촛불이 켜지고 집안은 색다른 분위기로 변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깊다/얕다’는 물과 관련된 사물들에 대해 공통적으로 아래쪽을 향한 수직 공간을 나타내며 이때 분명한 대립 관계를 이룬다. 그러나 위쪽으로는 수직 공간이나 입구에서 안 혹은 앞에서 뒤로의 수평 공간 개념에는 ‘깊다/얕다’가 독자적으로 사용되며 어떠한 대립 관계에도 있지 않다.

‘깊다/얕다’는 물 관련 어휘 외에도 수직 공간 개념을 지니는 다른 어휘들과 함께 쓰인다. ‘뿌리’도 그 중의 한 예이며 ‘깊은 뿌리’, ‘얕은 뿌리’로 자연스럽게 쓰인다. ‘골짜기’, ‘산골’, ‘계곡’, ‘산골짜기’, ‘산골’ 등 기본적으로 골짜기의 의미를 지닌 어휘들 또한 ‘물’이나 ‘뿌리’와 같이 수직 공간을 점유하며 ‘깊다’와 함께 쓰인다. ‘얕다’는 세종균형말뭉치에서 골짜기 관련 어휘 중 ‘계곡’과 한번 나타나지만 (13)에서 처럼 ‘얕은 골짜기’ 또한 자연스럽게 들린다.

- (13) 가. 산에서 야영할 때는 산간의 얕은 골짜기의 본줄기에서 되도록이면 먼 장소를 선택한다.
나. 맑은 물, 달 같은 모양이라는 뜻의 세월리란 지명처럼 얕은 골짜기에 맑은 물이 잔잔하게 너울거리는 이곳은 골짜기 가득 야생들꽃이 피어 있다.

그러나 ‘물’이나 ‘뿌리’와 달리 골짜기 관련 어휘들의 경우에 ‘깊다/얕다’가 적용되는 수직 공간을 차지하는 것은 빈 공간이다. 다시 말해 ‘깊다/얕다’는 골짜기 관련 표현들이 내재적 의미로 지니는 수직의 빈 공간의 크기를 나타낸다.

수직 공간과 관련해서 앞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깊다/얕다’가 적용되는 공간 사물은 공간을 차지하는 물이거나 뿌리처럼 안으로 파고들 수 있는 사물이거나 아니면 빈 공간처럼 다양할 수 있으며 이때 ‘깊다/얕다’는 공간 차원 어로서 확실한 대립 관계를 보여준다.

그 밖에 전형적인 공간(수평 공간이나 수직 공간)을 점유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골짜기와 같이 빈 공간이 ‘깊다/얕다’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간 사물들이 있다. ‘동굴’, ‘굴 속’, ‘구멍’, ‘주름’, ‘주름살’ 등은 그 성격상 수직이든 수평이든 어느 공간 차원으로든 생길 수 있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구멍’은 땅에 날 수도 있고, 벽에 날 수도 있고 천장에 날 수도 있다. 일견 상이한 공간 개념이 섞인 듯 보이나 Lang(1994)가 말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관찰자의 시선을 이들 사물들의 입구에 고정시키면 ‘깊다/얕다’는 결국 위의 ‘산’과 마찬가지로 이들 사물들의 입구에서 안으로의 크기를 나타낸다. ‘얕다’의 경우 세종말뭉치에서 ‘동굴’, ‘굴 속’, ‘구멍’, ‘주름’, ‘주름살’ 등과 쓰인 예는 없지만 웹 검색 결과는 이들 사물들이 ‘얕다’와도 자연스럽게 쓰이는 것을 보여준다.

- (14) ㄱ. 1868년 프랑스의 지질학자 루이 라르테가 프랑스 남부의 도르도뉴에 위치한 크로마뇽의 얕은 동굴에서 모두 5개의 고고학적 단층을 발견했다.
- 나. 낮에는 낙엽 밑이나 얕은 구멍 속에서 꼼짝않고 숨어 있다가 어두워지면 기다렸다는 듯이 산에서 내려온다.
 - ㄷ. 고품격의 고주파를 사용, 깊은 조직의 물분자를 진동시켜 발생하는 생체열로 콜라겐 재생을 촉진하고 셀룰라이트와 지방을 감소시키는 최첨단 시스템, 얕은 조직에 열을 가해 콜라겐 재생을 자극하여 깊은 주름과 얕은 주름도 개선시킵니다.
 - ㄹ. 레이저로 피부를 얇게 벗겨내면 나머지 진피층에서 콜라겐이 수축되고 상처 치유과정에서 콜라겐의 합성이 촉진되어 얕은 주름살이 제거된다.

지금까지 <표1, 2>에서 ‘깊다/얕다’와 함께 쓰인 표현들을 그 형상이나 의미별로 범주화하여 각각 ‘깊다’나 ‘얕다’와 쓰일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단 본 연구는 주로 연어 표현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깊다’와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로 함께 쓰인 표현들은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다음 <표3>은 앞선 논의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3> 공간 차원 어휘 ‘깊다/얕다’의 사용

공간	지시물	방향	예	‘깊다’와 사용	‘얕다’와 사용
수직공간	공간사물	위에서 아래	물, 바다, 강물, 뿌리 등	가능	가능

	빈공간	위에서 아래	골짜기, 계곡 등	가능	가능
	공간사물	아래에서 위	키, 탁자 등	불가능	가능
수평공간	공간사물	입구에서 안	산, 숲 등	가능	불가능
	빈공간	앞에서 뒤	마당 등	가능	불가능
	공간사물	입구에서 안	구멍, 주름 등	가능	가능

<표3>을 통해 ‘깊다/얕다’의 대립 관계를 정리해보면, 수직 공간에서 위에서 아래로의 거리나 빈공간을 지닌 사물의 입구에서 안으로의 크기를 나타내는 경우 ‘깊다/얕다’는 안정된 대립 관계를 이룬다. 반면 수직 공간에서 아래에서 위로의 거리나, 수평 공간에서 입구에서 안으로의 크기를 나타내는 경우 ‘깊다/얕다’는 대립 관계를 이루지 않는다. 이 중에서 아래에서 위로의 거리를 나타내는 ‘얕다’의 의미는 우선 ‘얕다’가 ‘낮다’와 거의 같은 의미로 사물을 지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로 의미 해석(특히 ‘얕다’와 ‘낮다’의 개념 혼동과 같은)이 가능하며 따라서 ‘얕다’의 공간 차원 의미 연구에서 유보하기로 한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특히 공간의 종류에 관계없이 ‘깊다/얕다’와 쓰이는 공간 사물 ‘구멍’이나 ‘주름’ 등의 경우를 고려해보면, ‘깊다/얕다’의 대립 관계가 불균형을 이루는 것은 수직이나 수평 공간과 관계된 것은 분명 아니다.

Vogel(2004)는 일반적인 혹은 전형적인 관찰자의 시점을 반영했을 때 ‘깊다/얕다’의 지시물들은 대부분 입구에서 안으로의 이동이라는 내재적 의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물론 여기서 ‘이동’의 이미지는 사람이나 사물이 들어가거나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내포한다. 위의 <표3>에 주어진 공간 사물들을 입구에서 안으로의 이동이라는 기준에서 다시 살펴보면, ‘깊다/얕다’와 쓰이는 공간 사물들은 관찰자가 봤을 때 분명히 입구가 있고 관찰자든 사물이든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예를 들어 ‘바다’는 분명 수면이 입구가 되고 사람들은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산’ 또한 관찰자 기준에서 ‘산’이 시작하는 곳이 입구가 되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구멍’은 관찰자가 눈을 댈 수 있는 입구가 있으며 안에 무언가를 채워넣을 수도 있다. 또는 큰 구멍인 경우 관찰자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공

간 차원과 관련하여 한편으로는 ‘산’을, 다른 한편으로는 ‘바다’나 ‘구멍’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무엇인가이다.

공간 사물에서 입구의 반대 개념인 막힌 곳은 ‘깊다/얕다’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우선 막힌 곳은 일반적으로 수직 공간에서는 입구의 반대인 바닥이 되며 수평 공간에서는 벽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입구의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이 막힌 곳을 바닥이라고 한다. 입구와 바닥의 개념을 통해 <표3>에 주어진 예들을 다시 살펴보면, 먼저 ‘바다’나 ‘구멍’은 입구로 들어가서 들어갔던 입구로 나와야 한다. 왜냐하면 입구의 반대편은 막혀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이나 ‘숲’은 ‘바다’나 ‘구멍’이 가지고 있는 바닥의 개념이 없으므로 어느 면에서는 두 개의 입구를 지니고 있고 한쪽 입구로 들어서 다른 쪽 입구로 나올 수 있다. 이때 사람들은 ‘산’이나 ‘숲’을 벗어난다고 한다.

사실 ‘깊다/얕다’의 대립 관계는 사람들이 공간 사물을 이해할 때 바로 이 바닥의 개념을 인지하느냐 그렇지않느냐와 상당한 관련이 있다. ‘얕다’는 ‘깊다’와 달리 반드시 바닥이 있는 공간 사물과 함께 쓰인다. 이는 사람들의 인지 구조상 당연한 것이다. 수직이나 수평 공간 길이를 측정하는 데 바닥이 없거나 바닥을 알 수 없는 것을 ‘얕다’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얕은 바다’나 ‘얕은 구멍’은 자연스럽지만 입구의 반대 개념인 바닥이 없는 ‘산’이나 ‘숲’은 ‘얕은 산’이나 ‘얕은 숲’이라고 할 수 없다. 단지 ‘깊은 산’이나 ‘깊은 숲’에 대해 ‘깊지않은 산’이나 ‘깊지않은 숲’이 반의 관계를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얕은 구멍’이 때로 어색한 경우가 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얕은 구멍’이 가능하지만, 한 쪽 벽면에서 다른 쪽 벽면까지 완전히 뚫린 ‘구멍’에 대해서는 그 벽이 아무리 얇더라도 ‘얕은 구멍’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결론적으로 ‘깊다/얕다’의 반의성은 공간 사물이 지니는 바닥의 개념과 관계하는데, ‘깊다’는 공간 차원을 나타낼 때 바닥의 유무와 상관없는 반면 ‘얕다’는 반드시 바닥이 있어야 하며 ‘깊다/얕다’의 대립 관계가 균형성을 잃는 것은 바로 바닥이 없는 공간 사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된다.

3.3. 비공간 차원 어휘 ‘깊다/얕다’

대부분의 공간 차원어는 의미 확장을 통해 비공간 개념어로 사용된다. 공간 차원 어휘가 비공간 혹은 추상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흔히 공간 차원어의 의미 확장 혹은 은유적 쓰임이라고 한다. 원형 의미와 확장 의미는 분명한 대응 규칙을 가지고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더구나 일반적으로 무표향은 유표향보다 그 인지 구조가 훨씬 더 풍부하므로 의미 전이에서 보다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원형 의미가 가지는 의미 관계 특히 두 반의어 사이의 대립 관계를 확장 의미에서도 그대로 발견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이유로 비공간 차원어 ‘깊다/얕다’가 보여줄 수 있는 대립 관계는 원래 본 연구의 대상이 아니며 이들이 가지는 모든 확장 의미에 대한 철저한 의미론적 분석 또한 본 연구의 범위 밖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비공간 개념어 ‘깊다/얕다’와 함께 쓰이는 추상 표현들을 조사 비교함으로써 앞절에서 ‘깊다/얕다’의 대립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으로 제시된 바닥 개념이 ‘깊다/얕다’의 확장 의미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간단히 보여주고자 한다.

다음 <표4, 5>는 세종균형말뭉치에서 비공간 차원 형용사 ‘깊다/얕다’와 함께 쓰이는 어휘들과 그 빈도수이다. 여기서 ‘사려깊다’나 ‘주의깊다’ 등과 같이 조사 없이 한 단어로 자주 쓰이는 표현들은 하나의 어형으로 파생된 것으로 간주하고 본 논의 대상에서 배제하였다. 또한 ‘깊이’와 ‘수심’ 등은 술어인 형용사 의미의 한부분이므로 본고의 고려 대상에서 제외한다.

<표4> 비공간 차원 어휘 ‘깊다’의 연어와 그 빈도수

빈도수	‘깊다’의 지시 대상어
188	밤
97	관심
75	관계
66	생각
61	잠
40	의미
39	관련
37	뜻
33	뿌리

31	상치, 이해
30	사랑
29	조예
28	한숨
27	인상
21	감명
17	사려, 역사
15	가을, 사색, 성찰, 유서
14	정
13	감회, 맛, 신앙심, 애정, 연관, 우려
12	인연, 어둠
11	지식, 갈등
10	감동, 감사, 영향
9	병, 의식, 이야기
8	수령, 통찰
7	학문, 마음, 반성
6	불신, 신앙, 차원
5	겨울, 고민, 사고, 시름, 신뢰, 연구, 전통, 좌절감, 충격, 침묵
4	고뇌, 고통, 눈매, 명상, 배려, 사상, 수면(잠), 연원, 속, 외로움, 우정, 의 혹, 진리, 체험, 추위
3	꿈, 내면, 내용, 눈길, 눈망울, 매력, 믿음, 발달, 세계, 수양, 신심, 심 지, 연민, 의문, 이상, 인식, 절망, 정서, 책임감, 한, 호소력
2	경지, 경험, 고마움, 공감, 공부, 굴곡, 그늘, 근원, 긴장, 깨달음, 내력, 내 막, 논의, 다짐, 대화, 무력감, 무의식, 문제, 밤중, 방향, 범위, 분열, 분위 기, 불신, 사고력, 사람, 사명감, 사연, 사유, 소리, 속, 숨결, 신음소리, 실 망, 심연, 안개, 안목, 양금, 연결, 연민, 오해, 우수, 위기, 유대, 의구심, 이 면, 이유, 이질성, 이치, 재앙, 저녁, 존경, 죄, 참회, 죄책감, 친교, 친밀감, 콤플렉스, 탐구, 포옹, 학식
1	가경, 가르침, 각성, 간격, 감각, 감개, 감정, 강박관념, 허무주의, 거래, 거 리, 걱정, 격려, 걱정, 겪음, 결속, 결심, 경륜, 경외감, 경쟁, 경제난국, 고 뇌, 고독, 고찰, 과학, 과학성, 관념, 관련성, 관심거리, 관심사, 관여, 교감, 교제, 구렁, 구렁텅이, 구석, 구조, 곳, 궁금중, 권태, 궤양, 그리움, 근저, 기름, 길이, 깨끗함, 꿈 속, 나락, 날, 욕구, 내성, 노력, 노선, 논쟁, 농촌, 눈초리, 느낌, 단전행공, 단절, 대립상태, 대지, 도취, 동기, 동요, 동정, 동 정심, 만족감, 만추, 모색, 모습, 몽상, 문제의식, 미신, 미움, 바탕, 반감, 반목, 배경, 법력, 병색, 병폐, 본성, 봄, 부패, 분단, 분쟁, 불신, 불안감, 불 일치, 불황, 비애, 비판의식, 사유력, 사의, 사죄, 삶, 삼경, 삼매, 상식, 상

실감, 상흔, 새벽, 색, 설레임, 설명, 섭리, 소양, 소외, 소외감, 소재, 속셈, 손가락, 수수께끼, 수행, 숨, 숨소리, 습기, 시련, 신뢰심, 실망감, 실의, 심려, 심리, 심중, 심호흡, 아쉬움, 아픔, 안개 속, 안정감, 안타까움, 앓, 암시, 애증, 야속함, 언어, 얻음, 연관성, 연구, 연대성, 연륜, 열등감, 열망, 염원, 영향력, 예찬, 오지, 요구, 우울, 우울감, 우울증, 원방형, 원인, 위안, 유대관계, 유래, 유작, 은총, 은혜, 음성, 의견, 의견대립, 의리, 의의, 의존성, 의지, 이질감, 이해도, 이해력, 인간, 인생, 인정, 자국, 자성, 자아, 자연 속, 자유, 잠 속, 장애, 재미, 재주, 저주, 적막 속, 적의, 절망감, 접근, 정도, 정밀성, 정신, 정적, 정진력, 조리개, 조심성, 종교, 주의, 주체성, 중독증상, 증세, 증오, 증오심, 지식정도, 지지, 지하, 지향, 지혜, 진행, 집안, 책임, 친척, 체념, 초겨울, 초조감, 층위, 친근감, 친애감, 침묵, 침울 속, 칩거, 쾌락, 키스, 타락, 탄력, 토론, 통일성, 투사, 투사각, 파급, 파당성, 팔짱, 패배주의, 폭, 품, 품성, 학문, 학설, 학술성, 학자, 한밤중, 함축, 해독, 해연, 향, 허무 속, 허무감, 허무주의, 허방다리, 허탈감, 혐오, 형이상학, 형제애, 호기심, 호흡, 혼란, 환경운동, 환멸, 환희, 효과, 후유증, 흔적

<표5> 비공간 차원 어휘 '알다'의 연어와 그 빈도수

빈도수	'알다'의 지시 대상어
3	참, 수면
2	심도, 생각, 수, 운두, 지식, 한숨
1	사람, 관심, 이해, 신분, 안목, 양급, 역사

예상한 바와 같이 무표향 '깊다'는 유표향 '알다'보다 개념적으로 훨씬 더 풍부하고 다양한 어휘들과 쓰인다. 무엇보다 <표4, 5>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감정, 마음, 지식, 생리적 현상 등 사람에 대한 표현이 많다는 것이다. 많은 연구들은 '깊다/알다'가 적용되는 전형적 공간 사물이 용기(혹은 그릇)의 이미지를 지닌 것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용기는 바닥이 있으며 안으로 사물이 이동할 수 있는 입구와 공간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몸과 마음은 그릇의 전형적인 은유이다.⁸⁾ 그릇으로서의 사람은 그릇이 물건을 담거나 쌓아두듯이 자신의 몸 안에 무언가를 담거나 반대로 내보낼 수 있다. 여기서 자신의 몸을 좀 더 정확하게 하자면 사람의 머리, 폐, 가슴 등이 될 것이다.

8) 그릇 은유에 대해서는 임혜원(2004) 참조.

먼저 머리에 대해 살펴 보면, 머리는 정신의 세계이며 의식의 세계이다. 사람들은 여기에 지식을 쌓아두거나 인상을 기록할 수 있고 혹은 이 세계에 빠져 사색을 하거나 성찰을 할 수도 있다. 공간 차원 형용사 ‘깊다/얕다’가 용기에 담긴 물과 자연스럽게 쓰이듯이 비공간을 나타내는 ‘깊다/얕다’도 지식, 경험(보거나 듣거나 느끼면서 겪은 지식), 생각, 이해 등과 자연스럽게 쓰인다. ‘잠’은 의식의 반대인 무의식의 세계이다. 사람들은 이 세계에서 ‘깊은 잠’과 ‘얕은 잠’을 잘 수 있다.

폐는 전형적으로 공기의 흐름과 연상되는 신체 공간이므로 머리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용기 역할을 한다. 이 용기에서 이동하는 것은 당연히 ‘숨’이나 ‘한숨’이다. ‘깊다/얕다’에 대해 ‘깊은 한숨’이나 ‘얕은 한숨’이 가능하다.

그러나 용기로서 사람의 가슴은 위에서 본 머리나 폐와는 다소 다르다. 가슴은 마음의 세계이다. 마음의 세계에는 주로 심리 작용이 일어나며 사람들은 그곳에 감정을 담아두고 그 감정에 뛰어들기도 한다. 여기까지는 정신 세계나 의식 세계와 비슷한 논리이다. 그러나 감정을 나타내는 어휘들은 절대적으로 ‘깊다’와 함께 쓰이며 ‘얕다’와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깊은 갈등’, ‘깊은 슬픔’, ‘깊은 연민’ 등은 자연스럽게 ‘얕은 갈등’, ‘얕은 슬픔’, ‘얕은 연민’ 등은 상당히 어색하다. 그러나 다음 (15)에서처럼 ‘깊은 정’과 ‘얕은 정’, ‘깊은 사랑’과 ‘얕은 사랑’ 등이 바로 대귀를 이루는 경우에는 ‘정’이나 ‘사랑’ 등이 ‘얕다’와 제한적으로는 쓰일 수 있다.

- (15) ㄱ. 깊은 정 얕은 정을 못잊어서 나 혼자 불러보는 현해탄에 열레지 달빛아래
별빛아래 깊어진 이밤에 현해탄을 넘어올 때
ㄴ. 진득한 사랑을 하지 못하고 얕은 사랑만을 반복하는 스타일이야. 일을 하
던, 책을 읽던 한 번 시작하면 정신없이 몰두하는 타입이야.

이는 한국어만이 가지는 특성은 아니다. 영어의 deep/shallow나 스웨덴어의 djup/grund도 감정을 나타내는 명사와 관련해서 마찬가지로의 특성을 보여준다.⁹⁾ 따라서 감정을 나타내는 어휘가 ‘깊다’하고만 쓰이는 것은 언어 보편

9) Kemmer(2007)은 British National Corpus에서 deep/shallow의 언어 표현을 추출하고 이를 빈도순으로, 의미 범주별로 정리하였다. 다음은 그 중에서도 감정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의 빈도수이다.

적 성향으로 볼 수는 있다. 물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따라야 한다. 여기서는 용기의 이미지와 관련하여 ‘깊다/얕다’의 추상 지시물을 모두 이해하는 것은 아직 불충분하다는 점만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사람 전체가 용기가 될 수 있다. ‘깊은 사람’이나 ‘얕은 사람’이 세종말뭉치에서 드물게 나타난다.

그러나 <표4>에서 보면 알겠지만 ‘깊다’와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은 ‘밤’이다. 말뭉치에 무려 188번이나 나타나는데 이는 두 번째로 빈도수가 높은 ‘관심’의 거의 두배이다. 이에 반해 ‘얕다’와는 한번도 쓰이지 않는다. ‘밤’은 위에서 살펴본 전형적인 그릇 이미지와는 관련이 없는 것 같다. 그렇다고 ‘깊다’가 ‘밤’과 같이 시간을 표현하는 어휘들을 한 범주로 하는 뭔가 공통된 개념을 나타내는 것 또한 아닌 것 같다. 예를 들어 ‘밤’은 시간이 흐르면서 상태가 깊어지면 ‘한밤’이나 ‘깊은 밤’이 되지만, 낮은 ‘한낮’이라고는 해도 ‘깊은 낮’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 특히 순환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밤’은 ‘가을’과 관련이 깊다. ‘깊다’에 대해 ‘낮’과 ‘밤’이 다르듯이 ‘봄’과 ‘여름’은 ‘가을’이나 ‘겨울’과 다르다. 세종말뭉치에서 ‘깊은 가을’은 15번 ‘깊은 겨울’은 5번 쓰이고 있으나 ‘깊은 봄’이나 ‘깊은 여름’은 쓰이지 않는다.¹⁰⁾ 물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얕다’와는 쓰이지 않는다.

Noun	Deep	Shallow
Love	22	0
Sadness	17	0
Feeling	16	0
Resentment	11	0

10) 비록 ‘여름’이 ‘깊은 여름’이나 ‘여름이 깊었다’로 쓰이는 것은 어색하지만 아래와 같이 ‘깊다’에 보조사 어간 ‘가다’가 붙어 ‘여름이 깊어만 가다’로 쓰면 자연스럽다.

(ㄱ) 여름이 깊어만 갑니다. 시골에 어머니가 살아주시던 강냉이가 생각나는 계절이네요.

이는 ‘여름’이 ‘깊어만 가다’와 쓰이지 않는 ‘낮’과 ‘봄’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은유에 대한 논의에서 ‘깊어 가다’는 ‘깊다’와는 분명히 다르다. 왜냐하면 ‘-가다’가 붙음으로써 보다 복잡한 은유의 의미망을 형성하리라 기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깊어 가다’에 대한 더 자세한 연구는 나중의 연구로 남겨두도록 한다.

앞 절에서 바닥 개념과 관련하여 공간 차원어 '깊다/얕다'의 대립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바닥은 '깊다/얕다'의 비공간 의미를 이해하는데도 중요하다. 우선 바닥이 없거나 바닥이 깊어 다다르기가 어려운 공간 사물에 적용되는 '깊다'의 다양한 확장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Vogel(2004)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깊어서 바닥에 다다르기가 어려운 것은 헤어나기가 어렵다는 의미를 가진다. 예를 들어 '깊은 수렁'은 은유적으로 쓰여 헤어나기 힘든 곤욕을 의미한다. 또한 끝없이 깊게 들어가는 공간의 속은 빛이 다다르지 않는 곳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어둠'은 '깊다'의 전형적인 연어 표현이다. '밤'이나 '가을'은 순환 시간 표현이며 순환 시간은 끝이 없는 무한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지 구조상 바닥의 제약성을 가지는 '얕다'와는 쓰일 수가 없다. 그러나 순환 시간 중 '밤'과 '가을, 겨울'만이 '깊다'와 쓰이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들만이 가지는 공통된 또 다른 개념이 필요하다. '밤'을 '낮'과 '가을'을 '봄'과 비교해보면 '밤'과 '가을'은 '낮'과 '봄'에 대해 밝음과 어둠의 개념에서 대조를 이룬다. 즉 '낮'이나 '봄', '여름'은 빛이 있거나 밝은 이미지를 가지는 반면, '밤'과 '가을', '겨울'은 어둡거나 어둠의 이미지를 가진다. 어둠의 개념은 '깊다'의 전형적인 확장 의미이며 따라서 '밤'과 '가을', '겨울'은 '깊다'의 전형적인 연어 표현이 된다.

4. 맺음말

공간 차원 형용사에 대한 연구는 공간 차원 어휘가 언어 보편적이며 시간이나 다른 추상적 의미 확장의 원형 의미가 된다는 점에서 언어에 대한 기본 연구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기존에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온 공간 차원 반의어쌍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공간 차원에 대한 연구는 부분적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깊다/얕다'의 반의성을 조명해보는 것은 공간 차원 어휘 전체의 대립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도울 뿐 아니라 나아가 공간 차원 어휘 전체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전형적으로 공간 차원어 '깊다/얕다'는 사물이 지표면을 기준으로 위에서 아래로 차지하는 거리의 크기가 크고 작음을 나타내는 형용사로 이해되어왔다. 그러나 본연구의 말뭉치 용례 검색 결과는 '깊다/얕다'가 단지 사물의 수

직 공간만이 아니라 지시물에 따라 다양한 차원과 양상을 나타내며, ‘깊다/얕다’의 대립 관계 또한 무표항 ‘깊다’의 의미에 따른 무조건적인 대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세종균형말뭉치에서 ‘깊다’와 가장 많이 쓰이는 공간 사물은 ‘산’이며 ‘깊은 산’은 ‘산’이라는 공간 사물의 입구에서 안으로 이르는 수평 공간 차원의 크기가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반면에 ‘얕은 산’은 ‘산’의 수직 공간 차원을 나타내며 낮은 산과 거의 동의어로 쓰인다.

본 연구는 ‘깊다/얕다’의 연어 표현을 조사 비교해봄으로써 우리가 사물의 차원을 어떻게 인지하며 공간 차원 형용사 ‘깊다/얕다’를 그들 지시물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깊다’는 관찰자를 기준으로 밖에서 안으로 혹은 입구에서 안으로(물, 바다, 산, 숲, 골짜기, 구멍 등), 앞에서 뒤로(마당 등)의 공간 길이의 크기를 나타낸다. ‘얕다’는 ‘깊다’와 마찬가지로 관찰자를 기준으로 밖에서 안으로 혹은 입구에서 안으로(물, 바다, 구멍, 골짜기 등)의 공간 길이를 나타낸다. 그러나 ‘깊다’와 달리 ‘얕다’는 입구에서 안으로 이르는 공간에 반드시 바닥이나 벽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물에만 적용된다. 이를 바탕으로 공간차원어 깊다/얕다의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깊다

1. 밖에서 안 혹은 입구에서 안으로의 거리가 길다
 깊은 바다/깊은 산/깊은 골짜기/깊은 구멍
2. (공간 사물의) 앞에서 뒤로의 거리가 멀다
 마당/선반이 깊다

얕다

1. (바닥이 있는 공간의) 밖에서 안, 혹은 입구에서 안으로의 거리가 짧다
 얕은 바다/얕은 구멍/얕은 우물
2. 위에서 아래로의 거리가 짧다
 얕은 산/얕은 지붕

따라서 ‘깊다’와 ‘얕다’가 대칭적 대립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바닥이 있는 공간의 입구에서 안으로의 크기를 나타낼 때이다. 바닥을 전제하기 어려운 공간 사물에는 ‘얕다’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때 ‘깊다/얕다’의 대립 관계는 대

칭성을 잃게 된다.

비공간 개념어로 사용된 ‘깊다/얕다’의 연어 표현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입구와 바닥의 개념이 ‘깊다/얕다’의 추상 의미를 이해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입구와 바닥을 지닌 공간 사물은 전형적으로 용기의 은유를 가지는데 사람 또한 용기의 전형적 은유이다. 따라서 비공간 개념어 ‘깊다/얕다’는 사람과 관련된 표현들(마음, 잠, 지식, 한숨 등)과 함께 잘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공간 차원어 ‘깊다’ 만이 적용되는 바닥이 없는 공간 사물은 의미 확장을 통해 헤어지기 어렵거나 어둠의 의미를 획득한다. 그 결과 ‘얕다’와 달리 ‘깊다’는 ‘밤’, ‘가을’ 등과 함께 자연스럽게 쓰인다.

결론적으로 공간 차원 형용사 ‘깊다/얕다’의 대립 관계는 ‘깊다’와 ‘얕다’가 지니는 다의성의 한 부분에 국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공간 차원을 나타내는 다른 반의어쌍에도 마찬가지로 경우일 수 있다. 따라서 공간 차원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그 어휘 자체의 개별 고유성에 입각한 어휘별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건희(2006), “형용사문의 주어와 의미역 설정에 관하여”, 언어학 44, 59-76, 한국언어학회.
- 김정남(2005), 국어 형용사의 연구, 서울:역락출판사.
- 류병래·이용훈(2005), “한국어 공간차원 표현의 결합양상과 제약”, 현대문법학회 2005 춘계학술대회.
- 양태식(1985), “국어 차원낱말의 의미구조”,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지룡(1992), 국어의미론, 서울:탑출판사.
- 임지룡(1997), 인지의미론, 서울:탑출판사, 35-64.
- 임혜원(2004), 공간 개념의 은유적 확장, 한국문화사.
- 전수태(1996), “공간 개념어의 반의 구조”, 웅진어문학 4: 389-422.
- Bierwisch, Manfred(1967), “Some semantic universals of German adjectivals,” *Foundations of Language* 3: 1-36.
- Carstensen, Kai-Uwe(2003), Asymmetries in Spatial Semantics, in: Claudia Maienborn (ed.), (A)-Symmetrien - (A)-Symmetries. Beiträge zu Ehren von Ewald Lang. Papers in Honor of Ewald Lang. Stauffenburg Verlag.

- Clark, Eve V. & Herbert H. Clark(1977), *Psychology and Language*, New York:Harcourt Brace and Jovanovich.
- Cody, James & Thomas Huckin(1997), *Second Language Vocabulary Acquis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irven, R. & J. R. Taylor(1988), "The Conceptualisation of Vertical Space in English:The Case of Tall," Brygida Rudzka-Ostyn(ed.), *Topics in Cognitive Linguistics*, 379-402, Amsterdam/Philadelphus: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Greimas, Algirdas Julien(1966), *Semantique Structurale*, Paris:Librarie Larousse.
- Kemmer, Suzanne(2007), "The Cognitive Semantics of Dimensional Terms,"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Language, Culture and Cognition.
- Lang, Ewald(1994), "Spatial Dimension Terms," in Martin Haspelmath and Ekkehard Koenig, (eds.) *Language Typology and Language Universals*, HSK 20.2, pp. 1251-1275.
- Lyons, John(1977), *Seman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oreno, Miguel Ángel Galeote, Herminia Peraita Agrados & Elan Checa Ponce(1999), "Adult Performance in Naming Spatial Dimensions of Objects," *The Spanish Journal of Psychology* v.2 n.1 39-54.
- Sun, Xudong(2004), "Acquisition of Opposites and Cognitive Explanation," *Sintagma* 16:15-21, universitat de Lleida, Imprès a Catalunya.
- Vogel, Anna(2004), *Swedish Dimensional Adjectives*, Stockholm:Almqvist & Wiksell International.
- Wienold, Goetz. and Ulrich Rohmer(1997), "On Implications in lexicalizations for dimensional expressions," in:K. Yamanaka & T. Ohiro (eds.) *The Locus of Meaning*, pp. 143-185, Tokyo:Kurosho.

말뭉치
 브라운코피스
 세종균형말뭉치 색인 말뭉치
 카이스트색인코피스

사전
 표준국어대사전

박선영
 서울시 관악구 신림9동 산 56-1번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51-742
전화번호: 02-880-8995
전자우편: alphaplus85@hotmail.com

홍기선
서울시 관악구 신림9동 산 56-1번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151-742
전화번호: 02-880-6078
전자우편: kshong@snu.ac.kr

원고 접수일: 2007년 6월 29일
게재 확정일: 2007년 8월 5일